

속사미인곡

이진유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8강 p.67

02 전체 흐름

유배지에 놓인 화자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드러내는 유배가사이다. 임에게서 멀어진 까닭을 타인의 모함과 시기에서 찾고, 궁핍하고 고립된 유배 생활을 한탄한다. 꿈속에서는 귀향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닭 울음소리에 깨어 다시 유배 현실로 돌아온다.

갈래·성격 유배가사 · 연군가사 · 총의적 · 한탄적
핵심 정서 유배 생활의 고통, 임금에 대한 그리움, 억울한 처지에 대한 한탄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여성 화자 가탁, 연군지정, 정치적 모함의 비유, 꿈과 현실의 대비를 함께 본다.

<보기> 키워드

유배

연군지정

여성 화자

시기·질투

꿈과 현실

대구·반복

03 시상 전개

이별

임과 멀어진 처지를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말처럼 제시한다.

모함

시기와 질투는 정치적 모함을 남녀 관계의 언어로 바꾼 표현이다.

꿈

꿈속 귀향은 임에게 돌아가고 싶은 연군의 소망을 보여 준다.

각성

먼 닭 소리로 잠에서 깨어나며 소망과 현실의 대비가 뚜렷해진다.

05 출제 포인트

주제 유형 유배 생활의 고통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중심이다.

시어 의미 “얼굴이 곱다”는 말은 정치적 모함을 질투의 비유로 바꾼 표현이다. “춘풍 도리화”는 누릴 수 없는 봄 풍경과 유배 처지를 대비한다.

구조 판단 꿈은 귀향 소망, 닭 울음은 현실 복귀의 신호이다. 꿈을 단순한 초월 체험으로만 보면 흐름이 흔들린다.

표현 기법 대구와 유사 통사 구조, 의문형 표현의 반복이 고립감과 간절함을 강화한다.

06 작품별 핵심 체크 (고전시가)

주제 유형

유배의 고통, 임금에 대한 그리움, 신하의 충정이 함께 드러난다.

가탁 방식

이별한 여인의 말로 신하의 연군과 억울함을 간접화한다.

오답 차단

시기·질투는 실제 연애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모함의 비유이다.

구조 포인트

봄 풍경과 유배 처지의 대비,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전환을 확인한다.

면앙정가

송순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6강 p.58

02 전체 흐름

면앙정의 위치와 주변 경관을 제시한 뒤, 사계절의 풍경과 자연 속 풍류 생활을 노래한다.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보다 자연 속 삶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며, 마지막에는 이 모든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갈래·성격 가사 · 자연 친화적 · 풍류적 · 충의적

핵심 정서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만족감,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03 구조 포인트

공간

무등산-제월봉-면앙정으로 좁혀지며 정자의 위치와 경관이 잡힌다.

사계

봄의 연하, 여름의 녹음, 가을의 황운, 겨울의 빙설로 시간이 흐른다.

풍류

자연을 보고 거닐며 즐기는 삶이 속세의 번거로움과 대비된다.

충의

마지막의 임금의 은혜 인식은 자연 속 만족을 유교적 충의로 마무리한다.

봄

흰 구름
뿌연 연하

여름

녹음
피꼬리

가을

황운
금수

겨울

빙설
경궁요대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자연 친화적 풍류, 사계절 경관, 시선·시간·공간의 이동, 임금의 은혜를 함께 본다.

<보기> 키워드

자연 풍류

사계절

시선 이동

은유

감정 이입

임금 은혜

05 출제 포인트

주제 유형 면앙정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이다.

시어 의미 무등산은 공간 배경, 연하·녹음·황운·빙설은 사계절의 흐름을 나타낸다.

표현 기법 대구·열거·설의가 자연 경관과 풍류의 흥취를 풍성하게 만든다.

은유·고사 늙은 용, 청학, 쌍룡, 긴 비단은 자연물을 비유한 말이다. 이백·악양루 고사는 신선 같은 삶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오답 차단 악양루는 실제 이동 공간이 아니라 고사 속 공간이다. 자연 예찬만 보고 충의 의식을 지우면 안 된다.

06 작품별 핵심 체크 (고전시가)

주제 유형

자연 속 풍류와 임금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작동한다.

시선 이동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시 주변 산수로 확장되는 흐름을 본다.

시간 구조

봄·여름·가을·겨울의 경관 변화가 작품의 큰 축이다.

오답 차단

속세 미련이 아니라 자연 만족과 충의의 결합으로 읽는다.

만홍

윤선도 · 2027 수능특강 문학 3부 실전 학습 1회 p.308

02 전체 흐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안빈낙도의 태도를 노래한 연시조이다. 화자는 산수 사이에 띠집을 짓고 보리밥과 풋나물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으로 받아들인다. 세속적 부귀와 욕망을 멀리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연 속 삶을 누리게 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갈래·성격 연시조 · 자연 친화적 · 안빈낙도적 · 충의적
핵심 정서 자연 속 소박한 삶의 만족, 속세 가치의 부정, 임금 은혜에 대한 감사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자연 친화, 안빈낙도, 속세 부정,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의 정서를 구분한다.

<보기> 키워드

자연 친화

안빈낙도

속세 부정

임금 은혜

시어 대비

설의 표현

03 구조 포인트

분수

산수 사이의 띠집은 화자가 받아들이는 자신의 분수와 삶의 자리이다.

자연

보리밥, 풋나물, 바위 끝 물가, 먼 뒀는 소박한 자연 친화적 삶을 나타낸다.

속세

삼공, 만승, 인간 만사는 화자가 지양하는 세속적 가치와 욕망이다.

은혜

임금 언급은 속세 미련이 아니라 자연 속 삶을 가능하게 한 은혜 인식이다.

긍정하는 자연

산수 간 바위 아래 · 띠집 · 보리밥 풋나물 · 바위 끝 물가 · 먼 뒀 · 강산

지양하는 속세

모르는 남들 · 여남은 일 · 삼공 · 만승 · 인간 만사 · 세속적 부귀와 욕망

05 출제 포인트

주제 유형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가 중심이다. 화자는 소박한 삶을 분수에 맞는 삶으로 긍정한다.

정서/태도 자연 예찬, 속세 부정, 임금에 대한 감사와 충의 정서가 함께 드러난다.

시어 의미 보리밥·풋나물·바위 끝 물가는 자연 속 삶, 삼공·만승·인간 만사는 세속적 가치를 가리킨다.

표현 기법 “있으랴”, “이만하랴” 같은 설의적 표현이 자연 친화적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오답 차단 임금 언급은 속세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다. 자연 속 삶을 허락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읽는다.

06 작품별 핵심 체크 (고전시가)

주제 유형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 임금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다.

대비 구조

자연의 소박함과 속세의 부귀·욕망을 선명하게 대비한다.

표현 기법

설의적 표현의 반복이 자연 속 삶의 만족을 강조한다.

오답 차단

임금 언급을 속세 미련으로 보면 안 된다. 감사와 충의이다.

대관재몽유록

심익 · 2027 수능특강 문학 (페이지 미상)

묶음 대관재몽유록

01 작품 개요

주제 꿈속 천상 문인 왕국을 통해 현실 인식과 욕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시문과 역사 인물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제시한다. 환몽 구조와 인물 관계 판단이 핵심이다.

02 전체 줄거리

- 현실** 작가는 누추한 현실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현실의 불만과 비평 의식이 꿈으로 우회된다.
- 입몽** 꿈속으로 들어가 천상 문인 왕국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경험한다.
- 관계** 심익은 천자 최치원, 옥란과 우호 관계를 맺고, 옥란과는 부부 관계가 된다.
- 반란** 김시습은 적대 관계의 인물이다. 휘파람으로 반란군을 잡는 비현실적 요소는 작가의 욕망을 보여 준다.
- 환몽** “배가 칼로 찌르듯이 아파 갑자기 깨니”에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04 구도 · 인물 배치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환몽 구조, 현실 복귀 지점, 심익을 둘러싼 우호·적대 관계, 비현실적 요소의 기능을 함께 판단한다.

<보기> 키워드

몽유록

환몽 구조

이원 공간

천상 왕국

인물 관계

휘파람

05 출제 포인트

구조 판단 현실-입몽-몽중 세계-환몽 구조를 먼저 잡는다.

공간 대비 꿈속 천상 문인 왕국은 이상적 질서, 누추한 현실은 작가가 처한 현실을 나타낸다.

관계 구도 심익의 우호 인물은 천자 최치원과 옥란, 적대 인물은 김시습이다.

환몽 지점 EBS 수록 부분에서는 “배가 칼로 찌르듯이 아파 갑자기 깨니”에서 현실로 돌아온다.

비현실 요소 휘파람으로 반란군을 잡는 장면은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작가의 욕망을 드러낸다.

오답 차단 꿈을 단순한 환상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 인식과 욕망이 우회적으로 표출된 구조로 읽는다.

핵심구도

한문소설 · 몽유록계 효시 · 비평적·이념적 성격.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지점, 우호/적대 인물 관계, 휘파람 장면의 비현실성을 함께 확인한다.

인현왕후전

작자 미상 · 2027 수능특강 문학 (페이지 미상)

묶음 규원가 / 인현왕후전 (갈래 복합)

01 작품 개요

주제 정숙·인덕의 화신인 인현왕후 민씨와 음험·간악의 화신인 장희빈의 대비를 통해 권선징악과 왕실 여성의 윤리적 자세를 보여 준다.

02 전체 줄거리

- 발단** 왕비 책봉 속종 6년 인경왕후가 승하하자 민씨가 왕비가 되고, 궁인 장씨는 후궁으로 들어온다.
- 전개** 희빈의 계략 장씨는 세자를 낳고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
- 위기** 폐위, 기사환국 1689 민씨가 폐위되어 본가로 돌아가고, 장희빈은 권세를 휘두른다.
- 절정** 복위와 저주, 갑술환국 1694 민씨가 복위되자 장희빈은 저주로 그녀를 해친다.
- 결말** 사사와 추모, 1701 속종은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고 인현왕후의 덕을 기린다.

04 인물 관계도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극단적 대비, 역사 사건의 도덕적 해석, 서술자 개입의 기능을 분리해 판단한다.

<보기> 키워드

- 인물 대비
- 권선징악
- 궁정실기
- 기사환국
- 갑술환국
- 서술자 개입

05 출제 포인트

EBS 수록 인현왕후가 폐위 뒤 본가에서 초연하고 단정하게 지내며 복위를 거절하는 모습이 수록된다.

대비 구조 인현왕후는 정숙·인덕, 장희빈은 음험·간악으로 그려져 권선징악 구도가 선명하다.

사건 판단 기사환국은 인현왕후 폐위와 장씨 책봉, 갑술환국은 인현왕후 복위와 장씨 폐위로 연결된다.

표현 방식 서술자의 개입이 인물과 사건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드러낸다.

오답 차단 실제 역사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글로만 보면 안 된다. 인물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해 교훈적으로 해석한다.

핵심구도

궁정실기소설 · 한글 산문 · 사실적·교훈적·전기적 성격. 정숙·인덕 대 음험·간악의 대비를 통해 왕실 여성의 윤리와 권선징악을 제시한다.

꽃

이육사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현대시 04강 p.90

묶음 꽃 / 누룩

02 전체 흐름

화자는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극한의 현실을 제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꽃을 통해 새 생명과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 내는 생명력, 저항 의지, 조국 광복의 희망을 상징한다.

갈래·성격 자유시 · 서정시 · 상징적 · 의지적 · 저항적
핵심 정서 암담한 현실을 넘어 새 생명과 해방의 미래를 기다리는 강인한 의지

03 이미지 전개

극한 하늘도 끝나고 비도 내리지 않는 공간은 생명이 부정된 암담한 현실이다.

맹아 눈 속의 꽃망울은 절망 속에서도 움직이는 생명의 징후를 보여 준다.

약속 제비 떼를 기다리는 태도는 미래를 향한 믿음과 기다림이다.

환희 꽃 성과 나비 이미지는 고난 뒤 찾아올 해방의 기쁨을 상징한다.

동방

민족 현실
삶의 터전

툰드라

척박함
극한 상황

꽃

새 생명
저항 의지

나비

해방의 환희
미래 공동체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화자의 정서·태도, 상징적 이미지 전개, 극한 현실과 생명 의지의 대비를 시구 근거로 판단한다.

<보기> 키워드

저항 의지

미래 지향

상징

색채 이미지

선경후정

영탄·설의

05 출제 포인트

정서/태도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을 초극하려는 미래 지향적 의지가 중심이다.

시어 의미 동방·툰드라·눈은 극한 현실, 꽃·꽃망울·제비는 새 생명과 해방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상징 판단 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이며, 꽃성은 밝은 미래와 광복의 환희로 읽을 수 있다.

표현 기법 각 연은 상황 제시 뒤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선경후정 구조를 보이며, 설의·영탄이 의지를 강화한다.

비교 포인트 이육사의 꽃이 고고한 저항 의지라면, 이성부의 누룩은 집단적 생명력과 변혁의 힘을 상징한다.

06 작품별 핵심 체크 (현대시)

주제 유형

극한 현실 속에서도 새 생명과 광복의 미래를 기다리는 의지.

이미지 전개

척박한 현실에서 꽃망울과 제비, 꽃성으로 희망이 확장된다.

표현 기법

상징, 색채 이미지, 선경후정, 영탄·설의 표현을 확인한다.

오답 차단

극한 현실 묘사를 체념으로 보지 말고 저항과 기다림으로 읽는다.

고향

현진건 · 2027 수능특강 문학 1부 9강 p.41

묶음 고향

01 작품 개요

주제 일제 식민지 수탈로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중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얼굴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비참한 조선의 얼굴**로 확장된다.

02 전체 줄거리

외화 | **기차 안 만남** 대구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와 마주 앉는다.

거리 | **거부감** 지식인인 '나'는 처음에 '그'를 불쾌하고 낯선 대상으로 바라본다.

내화 | **그의 사연** '그'는 고향을 잃고 일본·간도·만주를 떠돌다 돌아온 자신의 삶을 들려준다.

현실 | **식민지 수탈** 개인의 유량은 일제 강점기 농민이 겪은 토지 상실과 궁핍을 드러낸다.

공감 | **인식 변화** '나'는 거리감을 거두고 '그'의 사연에 공감하며 식민지 현실을 응시한다.

04 인물 · 구조도

공간 배경

대구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 ·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나'

1인칭 관찰자
[지식인]
외화의 관찰·서술 담당
처음에는 거리감
대화를 통해 공감으로 변화

대화
거리감
↓
공감

'그'

초라한 사내
[하층민·식민지 민중]
고향을 잃은 농민
일본·간도·만주를 떠돌
내화의 화자

액자식 구성

외화: 기차
내화: 그의 사연

객관성

관찰자 '나'가
사연을 전달

주제 강화

거리감에서
공감으로 변화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액자식 구성, 1인칭 관찰자 시점, 지식인과 하층민의 대비, '나'의 태도 변화를 함께 판단한다.

<보기> 키워드

액자식 구성

1인칭 관찰자

인물 대비

거리감→공감

식민지 현실

사실주의

05 출제 포인트

핵심 갈등 지식인 '나'와 하층민 '그'의 거리감이 대화를 거쳐 공감으로 바뀐다.

시점/서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나'가 외화에서 관찰하고, '그'가 내화에서 자신의 사연을 말한다.

액자 효과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식인의 시선으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주제 판단 '그'의 개인적 불행은 고향을 잃은 식민지 민중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된다.

오답 차단 '나'의 첫 거부감만 보고 작품 전체 태도를 냉소로 판단하면 안 된다. 변화의 끝은 공감이다.

핵심구도

단편소설 · 사실주의 · 비판적 성격. 외화의 '나'와 내화의 '그'를 통해 식민지 수탈이 만든 고향 상실과 민중의 비극을 드러낸다.